

배구&

8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유승민이 밝힌 '남북 단일팀' 방안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회장

“단일팀 성사 노력하겠지만 남북 논의 없다면 어렵다”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회장(37)이 내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단체전)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4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내년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국제탁구연맹(ITTF)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1926년 1회 대회(런던) 이후 국내에선 처음 개최된다는 점, 북한의 참가 및 단일팀 구성 여부 등으로 많은 관심을 사고 있다.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유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 상황과 단일팀 구성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유 회장은 “북한의 참가는 우리뿐 아니라 ITTF의 관심사다. 탁구 하면 남북관계에서 리드하는 종목이라는 인식이 있다. ITTF에서 초청장을 북한에 전달했다. 참가 여부와 함께 단일팀 구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 아시아연맹에서도 초청장을 보냈다. 현재까지는 피드백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대한탁구협회는 단일팀 구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다. 유 회장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스웨덴 할름스타드) 때 극적으로 단일팀을 구성했지만,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3월 22일 대회가 열리는데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확정돼야 한다. 단체전이 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은 대표팀 구성이 되지 않았지만, 단일팀 구성 시 선수들의 동의도 반드시 얻을 계획이다. 단일팀 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하겠지만, 늦은 시기까지 논의가 없다면 구성은 어렵다. 지바대회(1991년)와 같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길 기회가 오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유 회장은 끝으로 “2020년이 한국탁구에는 중요한 해다.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이 있다. 변화도 겪어야 한다. 탁구 발전을 위해 모든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 이상의 대회로 만들어보겠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했다.

출천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KB손해보험이 '12연패 탈출'로 얻은 교훈



KB손해보험 선수들과 권순찬 감독(가운데 김학민 뒤)이 3일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OK저축은행전에서 12연패를 끊어낸 뒤 기뻐하고 있다. 최악의 순간 속에서도 현장을 끝까지 믿어준 프런트의 신뢰와 인내가 긴 연패 터널을 벗어나게 했다.

“포기하지마” 프런트 믿음이 KB손보 바꿨다

권순찬 감독 사표까지 반려하며 신뢰 선수들도 변화...49일만에 V로 보답

KB손해보험이 마침내 지나간 연패의 사슬에서 벗어났다. 3일 OK저축은행에 세트스코어 3-0 승리를 거두며 개막전 첫 승리 이후 49일 만에 12연패를 끊고 시즌 2승째를 기록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온다고 했다. 11월 26일 수원 원정에서 한국전력에 11연패 짝을 당하며 팀 최다연패 신기록을 세웠을 때가 그랬다. 그 경기 뒤 권순찬 감독은 책임을 지기로 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했다. 사표를 제출했다.

구단주는 사표를 즉시 반려했다. 권순찬 감독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배구를 할 것이라면 여기서 해라”는 구단주의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감독에게 새롭게 도전할 힘을 줬다.

공교롭게도 1년 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한국전력은 개막 이후 16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부진의 이유는 이번 시즌 KB손해보험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큰 기대를 했던 외국인선수가 탈이났다. 한 경기도 해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번 시즌 산체스의 편박이었다.

한국전력도 KB손해보험도 선배의 실수를 연달아 하면서 팀은 회복하기 힘든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연패에 빠지면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다. 경기 운도 따라주지 않는다. 김철수 당시 감독도 연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구단에 뜻을 전했다. 만류했다. 더 참고 해보라는 메시지가 내려왔다. 그래도 팀

에 변화가 없자 양복 속에 사표를 품고 다녔다. 감독이 스스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경기가 12월 8일 KB손해보험전이었다. 감독의 결심을 알아차린 선수들은 그날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결과는 세트스코어 3-2 승리였다. 외국인선수 없이 토종들만으로 개막 이후 67일 만에 이긴 선수들은 응원해준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했다.

행편없는 팀이라도 언젠가는 이긴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참고 현장을 믿어주면 결국에는 좋은 날이 오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이를 참지 못하고 프런트가 안달복달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상황은 더욱 회복불능이 된다. 구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독을 신뢰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선수들이 알아차린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령탑의 교체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팀은 미래가 없다. 강팀과 약팀의 차이는 선수들의 능력이 결정적이지만 현장을 향한 프런트의 신뢰도 중요하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내부결속이 필요하다.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는 상대를 위해 정성을 다한다. 권순찬 감독도 지나간 연패에서 벗어나던 날 올림이 있는 말을 했다. “선수들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내가 모질게 대했다. 왜 안 하느냐고 야단도 쳤다. 조금 더 믿음을 가졌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이었다. 문제해결은 코트에서 뛰는 선수들이 한다. 힘들수록 감독은 선수들을 믿어야 한다. 프런트는 그런 감독을 믿고 힘을 줘야 한다. KB손해보험은 12연패를 했지만 대신 감독을 향한 프런트의 신뢰와 인내가 팀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로드FC 이수연(뒤)이 케이지로 돌아온다. 밴텀급 전 챔피언 이윤준과 함께 치열하게 복귀전을 준비하는 중이다. 사진은 프로 데뷔전에서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이수연. 사진제공 | 로드FC

“도망가면 진다...수연아 자신감 가지고 싸워” 14일 중국 스밍과 한판 승부

전 챔피언 이윤준이 예상한 이수연 복귀전

로드FC 최고 인기 스타인 이수연(25·로드FC 로데오)은 2018년 12월 15일에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끈기 있는 모습으로 약삭같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많은 격투기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일반 대중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당시 상대는 이예지(20·팀제이)로 프로 경험이 이수연보다 많은 파이터였다. 그런 데도 이수연은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경기를 주도해갔다. 심판 판정 끝에 데뷔전 승리를 따내며 행복한 연말을 보냈다.

그러나 시련은 곧바로 찾아왔다.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받으며 지나간 재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회복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수연은 복귀만을 기다리며 재활에 온 힘을 집중했다.

그는 “정말 경기를 뛰고 싶었다. 의사가 1년은 넘게 걸린다고 했는데, 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에 더욱 더 회복에 힘썼다”며 재활 과정에 대해 전했다.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친 이수연은 14일 서울시 흥동동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열리는 굽네몰 로드FC 057 XX에 출전한다. 중국의 스밍과 대결, 로드FC 2연승을 노린다.

이수연은 “스밍은 개인적으로 팬이다. SNS도 서로 팔로우가 되어있다. 저돌적으로 경기하는 선수다”라며 상대에 대해 말했다.

2연승을 바라는 이수연의 숨은 조력자는 로드FC 밴텀급 3대 챔피언 이윤준(31·로드FC 로데오)이다. 로드FC 로데오의 관장인 그는 이수연의 타격은 물론, 그라운드 기술까지 전반적인 기술 지도를 맡고 있다.

이윤준은 4일 “스밍은 투박하게 타격을 하며 레슬링을 하는 스타일이다. 도망가면 진다. (이)수연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냉정하게 서브미션으로 탭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유리한 신체조건을 살려 경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면, 타격으로 끝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수연은 실전에서 더 잘하는 타입이다. 열심히 준비시켜보겠다”며 지도자로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15개 대회 개근 문경준 vs 돌아온 상금왕 이수민

2019 동아스포츠대상 남자골프 올해의 선수는?

필드 위 동료들이 직접 뽑은 남자프로골프 최고의 선수는 누구일까.

올해로 11주년을 맞는 'CMS와 함께하는 2019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이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다. 동아스포츠대상은 5대 프로스포츠(야구·축구·남녀농구·남녀배구·남녀골프) 선수들의 투표를 통해 종목별 올해의 선수를 선정한다. 동료들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다.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는 최종전이었던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통해 대상과 상금왕의 주인공이 가려질 만큼 치열한 레이스를 펼쳤다. 2승 이상의 다승자가 나오지 않았던 탓이다. 총

15개 대회에서 각기 다른 15명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타이틀 경쟁이 전개됐다.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이는 문경준(37)과 이수민(26)이다. 고교 시절까지 테니스 선수로 활약하다가 대학 진학 후 프로골프로 전향한 문경준은 올해 우승은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15개 대회를 모두 개근하면서 단 한 차례도 컷 탈락하지 않는 꾸준함을 보였다. 이는 주요 타이틀의 상위권 성적으로 이어졌고, 결국 생애 첫 코리안 투어 대상의 영광까지 안았다.

유러피언 투어에서 돌아온 이수민의 활약도 만만치 않았다. 2015년 데뷔 당시 옛된 외모와 출중한 실력으로 귀공자로 불렸



문경준 이수민 함정우 이형준 서요섭

던 이수민은 지난 3년간 연속된 유럽 무대에서의 부진을 10월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셔널 우승으로 만회했다. 그리고 올 시즌 총 4억6994만 원의 수입을 벌여들여 상금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나란히 1승씩을 거둔 함정우(25)와 이형준(27), 서요섭(23)도 빼놓을 수 없다. 5월 SK텔레콤 오픈에서 개인 통산 첫 번째 우승 감격을 맛본 함정우는 상금 2위와 대상 포인트 3위라는 성적을 안고 생애 첫 동아스포츠대상 수상에도 도전한다. 6월 대상 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에서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매치 킹으로 등극한 이형준과 같은 달 KEB하나은행 인비테이

셔널에서 역시 생애 첫 승을 달성한 서요섭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포시즌스호텔서울(서울 광화문 사거리)
- 주최 :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채널A, CMS(센트럴미디어서비스㈜)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케이토토, 하이원리조트,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